

학업중단 위기 사전예방

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중점학교 공모... 24일까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굴을 통한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학업중단예방중점학교 운영 계획을 마련, 참여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예방중점학교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학업중단속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업중단의 고민

을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 및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학생의 학교 생활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학업중단예방 중점학교로 초·중·고 120개교를 선정해 단위학교 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4일까지 운영계

획서 등을 작성, 도교육청 공모사업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다수 발생 고등학교 10곳에 대해서도 '학업중단 예방 우선지원학교'로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업중단 속려기회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정책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안전한 통학로 만들어요” | 서거석 교육감, 전주서곡초서 교통안전 캠페인

서거석 교육감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등분서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주서곡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행사에 전주완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서 교육감은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노상 적치물 등 안전 통학 방해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새 학기를 맞아 등교하는 아이들의 합한 출발을 응원한 후, 교내 시설물 안전 여부도 직접 살펴봤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북도,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북본부, KBS전주방송



서거석 교육감은 15일 전주서곡초등학교를 찾아 전주완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총국, TBN전북교통방송 등과 '안전 전북,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안전

한 교육환경"이라며 "학교 주변 통학로와 교내 놀이시설 안전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15일 전북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 김숙 교육국장,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 등 10개 극단과 '학교폭력예방 연극 및 역할극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학교폭력 예방 연극 운영 '맞손'

도교육청, 극단 작은 소리·동작 등 10개 연극단체와 협약 이달부터 도내 모든 학교 대상 365회 예방연극 등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도내 연극 단체들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 김숙 교육국장,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대표 이미진) 등 10개 극단과 학교폭력 예방 연극 및 역할극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체험중심의 학교폭력예방 교육 운영 체제 구축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과 연극 단체는 초·중학교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맞춘 체험형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연극단체 활성화는 물론,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 인식 제고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연극 공연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역할극으로 학생 인성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연극 TF팀을 꾸려 학교폭력예방 표준대

본 구성부터 연극단체 모집공고 및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2월 말에는 도내 취·진학 전 초·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연극공연도 시연했다.

3월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65회의 예방연극과, 100개교를 대상으로 학생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학생과 소통하는 연극,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할극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석대 재활상담학과 장애인 직업평가 지원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가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평가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재활상담학과는 최근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제1기 Win-Win 직업평가 마스터 팀'을 구성, 올해 12월까지 직업평가를 필요로 하는 특수학교(학급) 및 재활기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팀원들은 학교에서 1년간 직업평가 및 직업평가실습 교과를 이수하고, 현장실습과 직업능력평가사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재활상담학과는 현장 실무능력을 겸비한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표본평가뿐만 아니라 상황평가와 VR직업평가 등이 가능한 실습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계별 직업평가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특수학교(학급)와 재활기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체험 프로그램과 직업평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승원 지도교수는 "Win-Win 직업평가 마스터 팀원들이 특수교육 및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기관을 찾아 직업평가와 사례관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장애인들에게는 자기이해 증진을, 현장에서는 직업재활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화이트데이 이벤트 성황

전주대학교는 지난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도서관 앞에서 제이트(전주대 캐릭터)가 캐릭터 사탕을 재학생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2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지난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도서관 앞에서 제이트(전주대 캐릭터)가 캐릭터 사탕을 재학생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2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World-OKTA와의 협업... 글로벌 취업 성과 가시화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월드옥타의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에 글로벌 취업준비반 학생들을 참가시켜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낸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의 전략적인 해외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로, 지속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LINC 3.0 사업단 산하인공유·창업센터(센터장 유경민)는 "전주대학교는 특별히 해외에서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세계적인무역인협회(World-OKTA)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정은성 기자

월드옥타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에 글로벌 취업준비반 학생들을 참가시켜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낸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의 전략적인 해외 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로, 지속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LINC 3.0 사업단 산하인공유·창업센터(센터장 유경민)는 "전주대학교는 특별히 해외에서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세계적인무역인협회(World-OKTA)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